

“새로운 역할 연기, 새 친구 만나는 느낌”

‘60일 지정생존자’ 이준혁

악역 맡아 극 후반 깜짝 죽음
적게 일하고 좋은 역할 연기
확실한 포인트서 죽는 게 좋아

“오히려 오영석이 조금 더 빨리 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늘어서는 것보다 확실한 포인트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전날 종영한 tvN 월화극 ‘60일, 지정생존자’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오영석은 갑갑한 외모와 새하얀 해군 제복 이면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분노와 서러움을 간직한 인물이다.

국회의사당 테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 테러 계획에도 가담했던 그는 극 후반부에 이르러 정체가 발각되고 부하의 총에 갑작스러운 최후를 맞는다.

배우 이준혁(36)은 오영석 역으로 드라마 ‘비밀의 숲’,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에 이어 다시 한번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펼쳤다.

21일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오영석의 이른 죽음에 대해 “적게 일하고 좋은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웃으면서 “원작에 따라 사망하는 것까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죽는 것까진 몰랐다”고 밝혔다.

‘60일, 지정생존자’는 미국 방송사 ABC와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원작 ‘지정생존자’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한국 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매력에 대해 그는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정치적 상황을 꼽았다.

“미국 원작이 가진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정치적인 사연들이 너무 많은 나라이기도 해서요. 원작이 과감할 수 있고 강력할 수 있는 캐릭터로 포지셔닝했다면 한국판은 그렇게까지 강할 순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 세밀한 감



정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극 중 오영석은 북한과의 해전에서 동료 군인들을 잃은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다. 이른바 ‘사연 있는 악역’인 셈이다. 드라마는 그런 그의 트라우마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사실 인물이 많이 표현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또 오영석의 과거가 다 표현되면 이건 오영석의 드라마지 박무진의 드라마가 아닐 것 같아요. 사정을 따져보면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다만 드라마는 박무진의 성장기로 표현해야 하니까 오영석은 스케치

하듯 다뤄야 하는 거죠.”

2년 전 ‘비밀의 숲’에서 비리검사 서동재 역으로 분한 그는 유난히 악역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대해 이준혁은 “사실 필모그래피 안에서는 선한 역이 더 많고 악역 비중은 작은 편”이라며 웃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캐릭터가 저 자신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내적으로 싸우기도 해요. 너무 다른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니까.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허무하죠. 연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에 거기에 반하는 캐릭터가 악역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준혁은 2007년 데뷔한 이후로 설 없이 영화와 드라마로 대중과 만났다. 그는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캐릭터가 저 자신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내적으로 싸우기도 해요. 너무 다른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니까.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허무하죠. 연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빅히트, 매출 2천억…내년 BTS 드라마 나온다

상반기 실적 설명회 열어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반기 2천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빅히트 방시혁 대표는 21일 오전 10시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최고 실적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빅히트는 음원과 음반, 공연, 콘텐츠, MD(팬 상품) 등에서 고루 성장해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매출과 맞먹는 수준인 20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도 391억원으로 지난해 641억원의 3분의 2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빅히트는 향후 웹툰, 소설, 애니메이션, 코믹북, 드라마, 폴 3D 그래픽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는 트랜스 미디어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유명 드라마 제작사와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방탄소년단 세계관에 기반한 드라마를 제작한다. 세계관에서 일곱 소년이 처음 만난 그 시절 이야기를 담으며, 어린 시절 대역을 맡을 주연 배우를 캐스팅할 예정이다.

아울러 넷마블과 함께 방탄소년단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두 번째 게임 프로젝트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8일 광주에서 열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

홍혜걸 의학기자, KBS ‘무한리필 샐러드’ MC

국내 첫 의학전문기자 타이틀을 걸고 활동했던 홍혜걸(사진)이 KBS 2TV ‘무한리필 샐러드’ MC를 맡는다고 20일 KBS가 밝혔다.

오는 26일 방송을 시작하는 KBS 2TV의 새 아침 시간대 프로그램으로, 음악, 뷰티 등 요일별 다양한 섹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제목의 ‘무한리필’은 패널 10명이 10가지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무한 제공한다



시 30분 첫 방송.

는 의미를 담았다.

홍혜걸은 김보민, 이승연, 아나운서와 함께 전문 분야 의학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그동안 쌓아온 입담을 풀어내갈 생각이다.

오는 26일 오전 9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광주 수영대회 결산 특집 평화의 물결, 광주를 넘어 스페셜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저스티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림 55 토크 보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공도령 2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2019 MBC배 대학농구 결승전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갤럭시웨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25 황금정원(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오솔밭 김재동	00 저스티스	05 공부가 머니? 1~2부	00 닥터탐정
[11]	35 UHD 숨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35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웅감한 소방차 레이 07:15 띠띠뽀 띠띠뽀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7:45 페파 피그 08:00 덩동댕 유치원1~2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08:45 라떼키즈 09:00 마샤와 곰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IDF 2019 아시아의 오늘-마더 13:35 EIDF 2019 키즈 다크 -마이 리틀 댄싱슈즈 14:30 띠띠뽀 띠띠뽀(재) 14:45 웅감한 소방차 레이(재) 15:00 탐험 구조대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16:00 예술아 놀자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6:30 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다크동화 달팽이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색다른 여름 남부 프랑스 4부 미디운하 타고 중세 시간여행〉 21:30 한국기행 〈여름에는 무작정 4부 못 가면 섬섬섬자, 계곡〉 21:50 EIDF 2019 동물들 만나다 -야생동물병원 24시 23:00 EIDF 2019 페스티벌 초이스-군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2일(음 7월 22일 辛卯)
子 36년생 목목회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48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60년생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아예 포기해라. 72년생 본격적으로 임하기 이전에 검증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84년생 동세가 반복 된다면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3, 83	午 42년생 환과가 도사리고 있다. 54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66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78년생 참으로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90년생 복잡다단했던 일이 늦게나마 정리 될 소지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2, 69
丑 37년생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49년생 불가피 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61년생 눈은 흥년인데 입은 흉년이다. 73년생 뜻이 있다면 주장해야 해결된다. 85년생 급변하는 도랑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46, 29	未 43년생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55년생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들라. 67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79년생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91년생 어떻게 하든지 무리함이 없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3, 97
寅 38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습관화 된다면 순기능을 하리라. 62년생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74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86년생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1, 87	申 44년생 사회적 통념에 비취보자. 56년생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우선 되어야만 할 것이다. 68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일관되게 진행하자. 80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92년생 너무 민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08, 41
卯 39년생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다면 손실이 크다. 51년생 잘 간수하지 못한다면 잃고 나서 후회하리라. 63년생 재출발하는 것이 옳다. 75년생 흐리터분한 데가 없이 썬이 밝고 명확해야만 한다. 87년생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1, 53	酉 45년생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57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69년생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81년생 한걸 걸어 서 차이가 없다. 93년생 일반적 보편성을 결여한 주관은 오류를 날기 쉬운 국량이다. 행운의 숫자 : 50, 99
辰 40년생 개별적 판단을 요하므로 낯날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52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접하게 될 수다. 64년생 생 노출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형세이다. 76년생 쌍방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불꽃 튀겠다. 88년생 허황된 일이니 빨리 포기 할수록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66, 08	戌 34년생 무리 없이 조절할 수도 있음을 잠정하자. 46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58년생 정면으로 대응하여 승부를 내야만 후환이 없다. 70년생 여유가 필요하다. 82년생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0, 26
巳 41년생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으니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53년생 다시 보면 달리 보일 것이다. 65년생 잘 준비되어 있는 지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77년생 효과과 나타나기 시작 한다. 89년생 일부러 나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9, 35	亥 35년생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면해질 수 있다. 47년생 변화의 시도와 응응이 이롭다. 59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71년생 적극성을 댄 선택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83년생 사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위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85, 5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